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를 통해서 본 고대의 관동(關東)*

閔丙勳**

目次

1. 들어가기
 2. 등장인물과 지명의 출처
 3. 약탈, 방화, 도망의 역사
 4. 무사시아부미(武藏鑑)로 상징되는 말(馬)관련 문화
 5. 나오기
-

1. 들어가기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헤이안(平安)시대 9세기 말엽에서 10세기 초엽 사이에 성립한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 작품으로, 모노가타리 안에는 하나의 소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들 그룹을 각각 「~장단(章段)」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들 중 구성면에 있어 가장 일관성을 띤 장단을 꼽는다면 아즈마쿠다리(東下り) 관계 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즈마쿠다리 장단은 주인공 남자가 ‘동쪽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 도읍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무사시국(武藏国)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행의 이동은 계속된다. 이세(伊勢), 오와리(尾張), 미카와(三河), 시

* 본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것임.
(KRF-2005-003-A00150)

**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나노(信濃), 스루가(駿河)를 지나고 있지만 현지인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문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문화를 전하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각 고장의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무사시국에 당도하고 나서 일행의 짐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단순기행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무대, 인물, 화제가 현지의 풍물과 인간관계에 고정되어 있으며, 관계 단의 길이에 있어서도 타 지역을 묘사한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이는 모노가타리의 배경이 된 시대의 지방관(觀)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당시의 중앙인들에게 있어 무사시국은 미지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살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물론 ‘살만한 곳’이란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이라는 의미로 국한시키기는 어렵고, 중앙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중앙에서 보면 원격지에 위치한 관동의 일개 변방이 귀족문학인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인공 남자가 현지의 여자에게 구혼하거나 결혼생활을 영위하거나 하는 장면은 왕조문학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아즈마쿠다리 관계 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무사시국 관계 단의 사적고찰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무사시국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독특한 문화권 형성의 기초가 어디에서 발현하고 있는지 밝혀나가고자 한다.

2. 등장인물과 지명의 출처

『이세모노가타리』 10단은 무사시국 이루마(入間) 출신의 한 여자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방호족으로 보이는 부친과 그 호족의 처인 후지와라성(藤原姓)의 모친 그리고 살만한 곳을 찾아 그곳에 당도하여 여자에게 구혼하는 귀족출신의 남자가 등장한다. 단문이지만 각각의 등장인물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무대가 된 지명이 지문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모노가타리의 사적배경을 시사하고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옛날, 한 남자가 무사시국까지 헤매며 걸어왔다.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여자에게 구혼했다. 여자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자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귀한 신분의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신분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후지와라씨 출신이었다. 그러한 연고로 고귀한 신분의 남자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 신랑감으로 여긴 남자에게 노래를 읊어 보냈다. 사는 곳은 이루마군 미요시노 마을이었다.

미요시노의 눈 위의 기러기는 한결같게도

당신 곁을 원하여 애타게 부르다오

신랑감은 답가로서,

나를 그리며 애타게 울고 있는 미요시노의

기러기를 언젠들 잊을 수 있으리오

라고 읊어 보낸 것이다. 타지에서조차 이 남자 역시 이런 호색은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¹⁾

양친의 태생이 소개되고 중앙에서 온 남자를 사위로 맞아들이려는 후지와라성의 모친과, 이에 반대하여 평범한 남자와 혼인을 맺게 하려는 부친의 모습을 통해서 중앙에서 온 귀인에 대한 지방인의 의식이 양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형태를 띤 부분이 확인되는데, 스마(須磨)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겐지에게 자신의 딸인 아카시노키미(明石君)를 시집보내려는 아카시노뉴도(明石入道)와 이에 반대하는 모친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²⁾. 부모의 입장이 『이세모노가타리』와는 반대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 구조면에 있어서 두 작품의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처럼 10단을 통해서 주목되는 것은 무사시국에 입성한 중앙인과 이미 무사시국에 정착한 후지와라성의 모친 그리고 범

1) むかし、おとこ、武蔵の国までまどひありきけり。さて、その国に在る女をよばひけり。父はこと人にあはせむといひけるを、母なんあてなる人につけたりける。父はなおびにて、母なん藤原なりける。さてなんあてなる人にと思ひける。このむこがねによみてをこせたりける。住む所なむ入間の郡、みよし野の里なりける。

みよし野のたのむの雁もひたぶるに君が方にぞよると鳴くなる

むこがね、返し、

わが方によると鳴くなるみよし野のたのむの雁をいつか忘れん

となむ。人の国にても、猶かかることなんやまざりける。(「大系」p.118)

2) 「(前略)吾子の御宿世にて、おぼえぬことのあるなり。いかでかかるついでに、この君をたてまつらむ」と言ふ。母、「あなかたはや。(後略)」「(전략) 내 딸의 운명에 이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그 분에게 꼭 드러야겠다.»고 말한다. 모친은 「그런 바보 같은. (후략)」(「新大系」 「須磨」卷, p.39)

인(凡人)인 부친, 이 3인의 입장을 통해서 그 이면에 투영된 역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루마군이 무대가 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처럼 지역에 얽힌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배경이 되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루마라고 하는 지명은 『만요슈(萬葉集)』에 ‘이리마지노(伊利麻治能)’³⁾로 시작되는 노래에 등장하고 있으며, 『엔기시키(延喜式)』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군명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루마 출신의 인물로는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난(藤原中麻呂亂)때 공을 세운 이루마노 히로나리(入間広成)가 있는데, 히로나리는 모노노베씨(物部氏)의 후손이며 이는 모노노베씨가 무사시국의 유력호족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⁴⁾ 또한 이루마군에서 과생한 인접 고마군(高麗郡) 출신으로 종3위까지 오른 고마노 후쿠신(高麗福信)이 있는데, 후쿠신은 고구려왕족의 후예로 히로나리의 고관이었다. 이들의 본거지는 거의 일치하며⁵⁾, 758년에 설치된 신라군(新羅郡) 또한 건군(建郡)전에는 이루마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 전해진다.

이 밖에도 무사시국에는 고대로부터 중앙에서 몰락한 와니(和邇)씨의 지족이 활약하였으며, 와니씨의 세력은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倭建命·日本武尊)의 동정(東征) 경로와 일치한다는 견해가 확인된다⁶⁾. 실제로 이루마군에는 닌토쿠(仁德)황후의 나시로(名代)가 있었으며, 『만요슈』 4423번 노래에는 ‘사이타마군(埼玉)의 상정(上丁) 후지와라베노 토모마로(藤原部等麻呂)’라는 이름의 무사시국 출신의 사키모리(防人)의 노래가 보이고, 『일본서기(日本書紀)』 인교조(允恭朝)에는 후지와라베가 천황이 정한 나시로로서 관동에 많은 성이라는 사실을 전한다⁷⁾.

지금까지 제시한 모노노베씨, 와니씨, 후지와라베 이외에도 헤이안시대에는 간무헤이씨(桓武平氏)의 일가가 반도(坂東)제국에 지방관으로 내려와 정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⁸⁾, 다이라노 마사카도의 난(平將門の

3) 『万葉集』 卷14, 3378番歌, 「伊利麻治能 於保屋我波良能 云々」(「新大系」 『万葉集』 3, p.319)

4) 『続日本紀』 称徳天皇神護景雲二年七月壬午, 「武蔵国入間郡の人正六位上勳五等物部直広成ら六人に入間宿禰の姓を賜ふ」(「新大系」 『続日本紀』 4, p.211)

5) 原島来礼二 『古代東国の風景』 pp.144~154参照, 吉川弘文館, 1994

6) 角川源義 「あづまの国」 参照, 杉原莊介·竹内理三編 『古代の日本7 関東』, pp.107~133 所収, 角川書店, 1970

7) 衣通郎姫の為に、藤原部を定む。(岩波文庫 『日本書紀』 2, p.326)

亂)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무사시노카미(武藏守) 후지와라노 히데사토(藤原秀郷)도 토착귀족으로 알려져 있다. 『손뽀분마쿠(尊卑分脈)』에 따르면 히데사토의 조부 때부터 동국의 지방관으로 임관하게 된다⁹⁾. 오타 료(太田亮)씨에 따르면 후지와라후케 나가요시류(藤原北家長良流)인 가스가씨(春日氏)는 무사시국 아다치군(足立郡)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¹⁰⁾.

『이세모노가타리』 10단에서 후지와라성의 모친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출신도 이상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상경하지 않고 정주해 버리거나, 중앙에서 쇠락한 씨족이 도읍을 등지고 주거를 반도(坂東)로 옮기던 상황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편 『일본서기』 685년 조의 “백제의 승려와 백성 남녀 합하여 23인을 무사시국에 안치한다¹¹⁾.”라는 기록 이래, 십여 차례에 걸쳐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 이주집단이 무사시에서 토착호족으로 성장해 간 정황이 발견된다. 이는 백제뿐 만아니라 고구려, 신라도 포함하는데, 이들이 각기 공동체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노가타리 안에서 후지와라성을 가진 모친과는 반대로 중앙에서 온 남자를 사위로 맞아들이려하지 않는 범인으로 묘사된 부친의 소생이 이에 해당한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일본 「육국사(六國史)」의 하나인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한반도의 삼국시대 말엽부터 서기 670년 무렵까지 일본으로 도래해 간 고구려, 신라, 백제 유민에 대한 기사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이 일본열도의 각지에서 독특한 문화를 전개하고, 자치사회를 영위하여 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660년 이후에 도래한 그룹 중 많은 수가 관동이북지방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관서지방에 권력질서가 정립됨에 따라 집권층에 의해

8) 平氏로서 반도에서 지방관을 역임한 인물은 다수 확인된다. 高望王(上総介, 桓武천황의 3대 손), 良兼(下総介, 4대), 良将(鎮守府將軍, 4대) 등, 자세한 사항은 『尊卑分脈』 제4편 「桓武平氏」 계도 pp.1~12 를 참조 바람.

9) 藤成(伊勢守、從四位下)-豊沢(下野權守 [少掾歟]、異本典沢、從四位上、備前守、母下野史生鳥取業俊女)-村雄(河内守、下野大掾、從五位上、母下野史生鳥取豊俊女)-秀郷(從四位下、武藏守、鎮守府將軍、母下野掾鹿嶋女)

10) 나가요시의 손자 히단(飛彈)의 관관대인 다메타카(爲孝), 처음으로 가스가(春日)라 칭한다. 그 후에인 다로유키모토(太郎行元) 다카우지(尊氏)를 받들어 아다치군(足立郡) 오케가와고(桶皮郷)를 영유한다.(『姓氏家系大辭典』角川書店, 1955, p.1485)

11) 五月の辛亥朔甲子に、化来る百濟の僧尼及び俗、男女并て二十三人、皆武藏國に安置む。(『日本書紀』天武天皇十三年五月条)

미개척지인 토지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관동이북지역에 정착한 도래인 중 고구려유민이 남긴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신사(神社)나 생활도구를 통해서도 고구려인의 자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속일본기』 겐세이기(元正紀)에 의하면 관동의 일곱 나라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인 1799명을 무사시국에 집단 이주시켜 고마군(高麗郡)을 설치한다¹²⁾. 이는 집권층에게 있어 고구려인이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던 사실을 입증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관동이북지역에 옮겨진 것이다. 고마군의 현재위치는 사이타마현 이루마군 히타카마치 고마혼고(埼玉縣入間郡日高町高麗本郷)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겐세이기(元正紀)의 기록을 통해서 관동의 각지에서 고구려유민에 의해 유사한 문화와 문명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간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하에서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야산을 태우는 고구려식 화전(燒畑)이 성행하였는데, 『이세모노가타리』 12단 안에서는 이것을 약탈과 관련지어 들에 불을 놓는 별개의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농법은 1960년대까지 지금의 사이타마(埼玉)현의 치치부(秩父)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13단에는 무사시아부미(武蔵鎧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등자는 중앙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던 특산물로 이 또한 일설에 의하면 고구려유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¹³⁾. 무엇보다 말(馬)에 관계된 지명, 도구, 무기, 마술(馬術)의 발달 등은 이후 일본열도의 패권으로 이어졌고, 관서지방과 대치하는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3. 약탈, 방화, 도망의 역사

『이세모노가타리』 안에서 6단과 함께 여자를 훔쳐 달아나는 내용의 설

12) 駿河・甲斐・相模・上総・下総・常陸・下野の七国の高麗人千七百十九人を以て、武蔵國に遷し、高麗郡を置く。(『続日本紀』卷七元正天皇靈龜二年五月辛卯条, 「新大系」2, p.15)

13) 鎌田正憲著『証考伊勢物語詳解』에 보면, 무사시의 등자를 高麗郡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鎮守を高麗神と称ひ彼國より持來れる兵器を神宝とせりといへるは然もありぬべし、さてしか高麗人のみ集り居れる郷なれば、馬具などもから風にもものして鎧も其風のさまをこそ製りも出すけめ、云々」p.99

화적 색채를 발하고 있는 12단은, 동국과 연관성을 가진 수편의 약탈담의 원형을 계승 간직하고 있는 단으로 추측된다.

옛날, 한 남자가 있었다. 남의 딸을 훔쳐내어 무사시노로 데리고 갈 때, 이 남자는 도둑이었기에 지방관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풀숲에 숨기고 도망가 버렸다. 뒤쫓던 자가 “이 들에는 도둑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불을 놓으려고 한다. 여자가 곤혹스러워하며,

무사시노는 오늘은 태우지마오 아직 새파란
나의 남편도 숨고 나도 숨어 있으니

라고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를 붙잡아 함께 데리고 가 버렸다.

‘무사시노는(むさし野は)’로 시작되는 와카(和歌)를 비롯하여 『이세모노가타리』 12단도 10단과 마찬가지로 무사시국을 특징짓는 다양한 소재가 융합되어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무대는 무사시국으로 동일하나 시대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중첩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동 지방민에 대한 중앙의 인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사료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서기』 게이코기(景行紀) 40년 7월 16일조에는 구마소(熊襲)를 평정하고 돌아온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에게 천황은 또다시 동정(東征)을 명하는데, 이 칙명을 통해서 반도지방의 인민이 조정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을 일삼는 극도로 야만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쪽의 미개인들은 성질이 난폭하고 강인하며, 약탈을 다반사처럼 한다. 고을에 장이 없고 마을에 우두머리가 없다. 각지의 경계를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더욱이 서로 빼앗는다. 또한 산에 사악한 신이 있고, 들에 간교한 귀가 있다. 거리를 차단하고 길을 막고, 허다하게 사람을 괴롭힌다. (중략) 화살을 머리 상투 뒤에 감추고 칼을 옷 안에 찬다. 또는 패거리를 모아 길의 경계를 습격하고, 혹은 농잡을 살펴 백성 것을 빼앗는다. 공격하면 수풀 속으로 숨어 버리고, 쫓으면 산으로 들어간다.¹⁴⁾

14)其の東の夷は、識性暴び強し。凌犯を宗とす。村に長無く、邑に首勿し。各封堺を貪りて、並に相盜略む。亦山に邪しき神有り。衢に遮り徑を塞ぐ。多に人を苦しむ。箭を頭髻に藏し、刀を衣の中に佩く。或いは党類を聚めて、辺堺を犯す。或いは農桑を伺ひて人民を略む。撃てば草に隠る。追へば山に入る。(「大系」)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위의 사실 외에도 동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 ‘약탈’, ‘도망’에 관한 기록이 문헌을 통해서 빈번히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세모노가타리』 12단 안에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설화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약탈하여 무사시노로 도망하자 이를 붙잡기 위해 들판에 불을 놓는다는 이야기는 중앙에서 본 무사시국의 이미지인 것이다.

1) 불이 상징하는 것

불에 관계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 보면 모노가타리의 소재로 다뤄질 만큼의 많은 기록이 발견된다. 준닌(淳仁) 763년의 칙문 중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관물에 손해를 끼쳤다는 상소문이 보이는데 화재는 신불(神火)에 의한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후에도 빈발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에도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걸쳐서 동국의 정창(正倉)이나 고쿠분지(国分寺)에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771년 9월 태정관(太政官)에 보내진 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루마군의 정창 4군데가 불타 곡물 전부가 소실되었고, 그 원인이 신사가 조정의 봉납을 태만이한 때문이며 그 결과 신의 재앙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태정관에서는 조사를 시행하여 결국 무사시고쿠시(武蔵國司)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폐백(幣帛)의 봉납을 용인한다. 그러나 이듬해 정세는 바뀌어 태정관은 이루마군의 군지(郡司)를 파면하라는 관부를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불이라 칭하는 화재가 발생하고, 이 시점에서 태정관은 지방관 자리다툼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포착한다. 더욱이 786년 8월 공문이 대폭 수정된다. 고쿠시, 군지직의 자리다툼으로 인한 화재와 더불어, 곡물을 중앙에 상납하지 않으려는 계략으로 방화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¹⁶⁾.

이렇게 준닌조로부터 간무조에 이르기까지 정창 등을 방화하는 사건이 관동에 다발했던 상황을 문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이세

15) 神火屢至りて、徒に官物を損ふ。此は、国郡司等の国神に恭しからぬ咎なり。(「新大系」『続日本紀』3, p.436·437)

16) 正倉焼かるること、必ずしも神に由らず。何となれば、譜第の徒は傍人を害はむとして相焼き、監主の司は虚納を避けむとして火を放てり。(「新大系」『続日本紀』5, p.373)

17) 신불(神火)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高島正人「神火と土豪」(志田諄一編『古代の地方史』pp.185~211, 朝倉書店, 1977)를 참조 바람.

모노가타리』 12단은 정창 등의 방화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나, 불로 상징되는 무사시노의 역사와 중첩되는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노가타리에서처럼 들판에 불을 놓는 장면을 묘사한 사료와 작품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사기』 게이코기(景行記)의 동정담(東征譚)안에는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사가무국(相武国)에서 국조(国造)의 음모에 말려들어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한 내용이 보인다.

사가무국에 이르렀을 때, 그 국조 거짓으로 고하기를 “이 들 안에 큰 늪이 있는데 이 늪에 사는 신 심히 기세가 강한 신이다”라고 말씀드린다. 그리하여 그 신을 보기위해 그 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때 국조가 그 들에 불을 질렀다.¹⁸⁾

사가무국은 일반적으로 사가미(相模)로 해석되는데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사가미와 무사시를 합한 지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야마토타케루는 국조의 말에 속아 큰 늪에 산다는 신을 보기 위해 들판 안으로 들어가고, 이 때 국조는 타케루를 죽이기 위해 들판에 불을 놓는다. 여기서 이 장면을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중앙정부의 오랜 숙원이던 동정(東征)정책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으나, 이야기가 발하고 있는 풍토기적 색채로부터 추측하면 지방색과 민속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의 불은 노야키(野焼)나 야키하타(焼畑)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⁹⁾.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잡목림 등의 황무지에 불을 놓는 일종의 농법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불을 이용하여 벌판을 태우는 경작법은 반강제적으로 무사시국에 입식된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들에 의해 관동의 각지에서 널리 행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일본기』 겐세이기(元正紀)에 따르면 관동의 스루가(駿河), 가이(甲斐), 사가미(相模), 가즈사(上總), 히타치(常陸), 가미쓰케(下野)의 일곱나라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인 1799명을 무사시국에 집단 이주시키고 고마군(高麗郡)을 설치한 사실(史實)이 확인되는데, 고마군이 설치된 장소는 동치치부(東秩父) 산록지대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였다. 여기에 선진기술력을 가진 도래인을 안치하여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

18) 「新潮日本古典集成」 『古事記』에서 발췌 번역, pp.162~163

19) 『古事記』의倭建火難伝承の中には、古代の焼畑農民の技術が投影されているのであった。してみると、日本武尊は、野焼き、焼畑の技術を持った神であり、火伏せの技術を持った神であり、開拓の神でも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野本寛一『焼畑民俗文化論』雄山閣出版, 1982, p.431)

것이라 전한다²⁰). 이에 유민들은 들에 불을 놓아 원야를 경작지로 바꾸는 화전농을 경영하고 관개시설을 만드는 등의 개혁에 임했던 것이다. 이 화전농법도 고구려유민들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황무지에 보내진 한반도유민의 개혁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풍물이라 여겨진다²¹).

『이세모노가타리』에서도 무사시노에 불을 놓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으며 『고사기』의 내용과 흡사한 풍경을 그리고 있다. 『고사기』에서는 사가무국의 들판에 들어간 야마토타케루를 죽이기 위해 국조가 불을 지르고 있으며, 『이세모노가타리』에서는 여자를 약탈한 남자가 무사시노에 숨어들어 이를 잡기위해 들에 불이 지펴진다. 이야기형태의 답습이 엿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노야키나 야키하타로 상징되는 동국의 풍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2) 약탈과 도주

다음은 약탈에 관계된 사적 고찰이다. 모노가타리 안에서 여자를 약탈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약탈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 권력자의 권한을 상징하는 물건을 훔쳐 도망하는 행위가 내재하는 경우가 있다. 즉 모노가타리 안에서는 그것을 여자를 약탈하여 도주하는 이야기로 각색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에미 오시카쓰(惠美押勝)의 난을 들어, 오시카쓰가 황권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궁원(中宮院)의 역령(馭鈴)과 내인(內印)을 탈취하여 도주한 일이, 『이세모노가타리』 6단에서 남자가 긴 세월 구혼해 오던 여자를 훔쳐 달아나는 이야기로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²²). 즉 역령과 내인을 약탈하는 행위는 정권에 대한 야망을 나타내는 것이며, 역령과 내인이 모노가타리에서는 창고 안에 들어가 보호받고 있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관계되는 사료로서 엔랴쿠11년(792) 6월의 태정관부(太政官符)의 기록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국의 곤데이(建兒)의 역할에 대해 적고

20) 森田梯 『古代東国と大和政権』 第四章 「壬生吉志の入植」 参照, 新人物往来社, 1992, p.97~116

21) 武蔵の国名由来については、本居宣長以来多くの説があるが、それがもし朝鮮語の焼畑を意味する「サシ」という語に関連があるとすれば、国名成立の背景に帰化人を想定することもあながち見当違いではあるまい。(今井啓一 「帰化人の來住」 杉原莊介・竹内理三編 『古代の日本7 關東』 所収, 角川書店, p.247)

22) <『이세모노가타리』 6단의 「아쿠타가와라고 하는 강」 고-지사적 시점으로부터-> 『国語と国文学』 77卷, 2000, p.23

있는데, 역령을 보관하는 창고가 정비되고 곤테이에게 그 수호를 담당할 것을 명하고 있다²³⁾. 즉 6단에서 창고 안의 여자와 창고 문밖을 지키는 남자의 영상이, 역령과 창고와 곤테이의 변용체로서 암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덴교(天慶) 2년(939) 11월, 다이라노 마사카도는 히타치국(常陸国)의 고쿠시를 납치하여 고쿠가(国衙)발행의 공문에 날인하는 나라의 인(印)과 정창(正倉)의 열쇠를 탈취하고, 이어서 시모쓰케(下野), 고즈케(上野)를 공략하고, 또한 무사시, 사가미의 인과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횡행하는데, 다이고(醍醐)천황 3년(900) 11월에도 군도(群盜)가 봉기하여 피해는 증폭되어 간다²⁴⁾. 특히 정부는 861년부터 군도의 약탈을 저지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니(国)에 하나씩 설치하던 게이비이시(檢非違使)를 무사시국에는 군마다 두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지만²⁵⁾, 결국 약탈자가 광활한 무사시노 안으로 도망하면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중앙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무사시국을 중심으로 한 군도의 사태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는 수백년에 걸친 동국정벌이 완전한 상태로 결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하다. 또한 이와 같은 동국정세는 중앙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이세모노가타리』 12단에서와 같이 모노가타리 안에 용해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약탈로 시작되어 무사시노로의 도망, 무사시노의 방화로 이어지는 모노가타리의 내용은, 무사시국의 역사와 문화를 총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약탈과 도망과 방화의 실상은 중앙정부에서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으며, 이것이 지방특색인 야키하타 등의 농법과 융합되어 모노가타리를 생성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4. 무사시등자(武藏鎧)로 상징되는 말 관련 문화

23) 其兵庫鈴藏及国府等類。宜差健兒以宛守衛。宜簡差郡司子弟。作番令守(「新訂増補国史大系」『類聚三代格』後編, p.558·559)

24) 「新訂増補国史大系」『扶桑略記』醍醐昌泰三年十一月十八日

25) 武藏国每郡置檢非違使一人。以凶猾成唐党。群盜滿山也。(「新大系」『続日本紀』稱徳天皇神護景雲二年六月)

모노가타리 13단에는 무사시국에서 현지의 여성과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남자는 중앙의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겹봉투에 ‘무사시아부미(武藏鎧)’라고 적어 보낸다.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대신 무사시등자라 쓴 것이다. 더욱이 남자는 그 후 오랜 기간 소식을 전하지 않는데, 이는 주인공 남자의 마음이 이미 무사시국에 정착한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옛날, 무사시에 사는 남자가 교토에 사는 여자에게 “소식 전하러니 부끄럽고, 전하지 않으려니 괴롭다”고 적어 겹봉투에 ‘무사시등자’라고 써서 편지를 보낸 뒤 안부도 물어오지 않기에 교토로부터 여자가,
 무사시 등자 연결고리에 꿰어 부탁하기를
 묻지 않아 괴롭고 물어 와도 힘들다
 라고 쓰인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전하니 불만 전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니
 무사시 등자에 걸리는 날에는 야 사람은 죽으리라

무사시국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이 무사시의 특산물인 무사시등자에 응축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등자라 함은 말의 안장 양 옆에 드리워, 타는 사람이 발을 거는 마구로 나무나 철이 재료로 쓰였다. 문헌을 근거로 하여 무사시등자로 상징되는 무사시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사시(武藏)’라는 국명에 관하여 쇼토쿠(称徳)천황 때의 상소문에서는 ‘이미 무(武)를 거뒀들여(藏) 사용치 않고 문(文)을 숭상한다²⁶⁾.’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회유정책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한편 무를 거뒀들었다는 문장을 통해서 본래는 무력 즉 군사력이 강대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당시의 군사력이라 말하면 무기와 마구의 발달은 필요불가결한 요인인데, 모노가타리 안에 등장하는 무사시등자는 일반 등자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당시의 무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무사시의 특산물 중의 하나였다. 특히 광활한 반도(坂東)의 별관은 군마(軍馬)의 사육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말에 관련한 지명도 많다. 목초지는 정월 이후에 불을 놓아 태우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노야키(野焼)는 밭이나 논외의 개간과 더불어 말을 사육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사시를 둘러싼 관동지역은 예로부터 말의 산지

26) 国号武藏ハ、既ニコレ戢武崇文ノ祥ニシテ、云々(『続日本紀』神護景雲二年六月癸巳条)

였으며, 그에 따라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증강이 용이했고 이후 동국무사 탄생의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이세모노가타리』 13단의 ‘무사시아부미’는 마구에 뛰어난 무사시국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가 한때는 동북(東北)의 예조정벌에 강제동원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컸다. 그 결과물로서 국부(国府)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군도(郡盜)가 봉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동민이 예조제압의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또한 쓰쿠시(筑紫), 오키(隱岐), 쓰시마(対馬)를 지키는 사키모리(防人)로써 징용된 것은,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궁마(弓馬)의 정예병(精銳兵)’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실을 입증하는 요소이다. 특히 관동의 원야는 말의 목초지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9세기전반 무렵까지 무사시의 말은 천황에게 헌상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기마에 익숙했으며 마구에도 현저한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²⁷⁾.

한편 무사시등자의 출처와 그들이 기마에 능한 이유에 관해서, 고구려유민의 이주와 그에 따른 고구려 문화의 확산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보인다²⁸⁾. 이렇게 보면 위에서 논한 것처럼 고구려 문화의 유입은 무사시국의 문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상에서 기술한 상황 속에서 ‘무사시아부미’가 산출되어 중앙에 있어서 귀히 여겨졌으며 무사시의 일단을 상징하는 물건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마침내 『이세모노가타리』의 13단과 같이 모노가타리 안에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리라.

모노가타리 13단의 주인공 남자의 태도에서 도읍의 여자에 대한 미련은 엿 볼 수 있으나, 도읍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무사시국에 정착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등장인물과 지명의 출처’에서 논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읍을 떠난 중앙인이 관동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정착해 간 모습이 13단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지방관으로 도읍을 떠난 사람이 임기가 끝나도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터전을 마련한 사실이 그려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도읍에 남겨두고 운처(妻)나 연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더 이상 소식을 전하지 않자, 원망을 담은 편지가 여자에게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27) 網野善彦 『東と西の語る日本の歴史』 4章 참조, そしえて, 1990, p.72

28) 賀茂真淵 『伊勢物語古意』 (1793) 「武藏鎧は昔此国より出せし故の名なるべし。此国にはむかし高麗人を多くおかれしなれば、さる者らが作りそめたるこま様の鎧をば後までも出せし故に一つの名となれるにや。 <武藏国に高麗人をおかれし事日本紀に見ゆ。即郡名ともなりぬ>云々」 (竹岡正夫 『伊勢物語全評釈』 所収, 右文書院, 1987, p.311)

5. 나오기

종래의 『이세모노가타리』 연구에 있어서 무사시국 관련 단(段)의 사적 연구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사시국이 무대가 된 10단부터 13단까지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미야코(都)’나 ‘미야비(雅び)’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이나카(田舎)’와 ‘히나비(鄙び)’를 강조하여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논시점의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사시국 관계 단이 『이세모노가타리』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귀족문학, 왕조문학 안에서 무사시국은 한낱 변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방이 무대가 되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인공을 아리와라노 나리히라(在原業平)로 단정해 버리면 모노가타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극단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세계를 찾아 도읍을 떠나 동국의 무사시국에 정착한 남자의 이야기로 읽으면, 헤이안초기의 무사시국의 풍경이 부각되어 올 것이다. 10단의 ‘후지와라씨(藤原氏)의 모친’과 12단의 ‘무사시노(武蔵野)는 오늘은 태우지마오’라는 와카(和歌)의 말구내용과 13단의 ‘무사시아부미(武蔵鑑)’ 등의 소재로부터 당시의 무사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사시의 후지와라씨는 중앙귀족의 토착을 의미하며, ‘노야키(野焼)’와 ‘미요시노(三芳)의 논(田)’은 황무지 개척과 윤택한 농지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무사시아부미’는 마구제조기술 등의 발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구가하던 무사시국에는 당연히 중앙과 타 지방으로부터 적지 않은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무사시국의 지방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유민들의 이주와, 그들에 의한 문화입식 그리고 토지개척일 것이다. 이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노가타리의 분석을 통해서도 도래 문화의 정착을 발견할 수 있다.

【参考文献】

- 『日本書紀』 「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 『続日本紀』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尊卑分脈』 「新訂増補国史大系本」 吉川弘文館
 - 『類聚三代格』 「新訂増補国史大系本」 吉川弘文館
 - 『扶桑略紀』 「新訂増補国史大系本」 吉川弘文館
 - 『古事記』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万葉集』 「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 『本朝文粹』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源氏物語』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
- 大津有一・築島裕(1957) 「日本古典文学大系」 『伊勢物語』, 岩波書店,
 - 鎌田正憲著(1974) 『証考伊勢物語詳解』, 名著刊行会, pp.95~100
 - 石田謙二(1979) 「角川文庫」 『新版伊勢物語』, 角川書店, pp.114~116
 - 森本茂(1981) 『伊勢物語全釈』, 大学堂書店, pp.114~129
 - 竹岡正夫(1987) 『伊勢物語全評釈古注釈十一種集成』, 右文書院, p.311
 - 太田亮(1955) 『姓氏家系大事典』, 角川書店, p.1485
 - 杉原荘介・竹内理三編(1970) 『古代の日本 7關東』, 角川書店, pp.107~133.
p.247
 - 林陸郎(1975) 『史実平将門』, 新人物往来社, pp.54~82
 - 志田諄一編(1977) 『古代の地方史 5坂東編』, pp.185~211
 - 野本寛一(1982) 『焼畑民俗文化論』, 雄山閣出版, p.431
 - 森田悌(1986) 『日本古代の耕地と農民』, 第一書房, pp.247~273
 - 森田悌(1992) 『古代東国と大和政權』, 新人物往来社, pp.97~116
 - 原島礼二(1993) 『古代東国の風景』, 吉川弘文館, pp.144~154

要 旨

従来の『伊勢物語』研究において、武蔵国関連章段の史的 연구は提出されていない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武蔵国が舞台となっている十段から十三段までの章段に焦点を当てている論文は、容易に見つからないばかりでなく、あるとしても、「みやこ」や「みやび」の相対的概念としての「いなか」と「ひなび」を強調して、これを蔑視の対象としている、という視点での論文に過ぎないのが現状である。つまりこれは、武蔵国関係章段が『伊勢物語』研究の真ん中に位置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もある。何故なら、貴族文学、王朝文学といわれる平安朝文学の中で、武蔵国は未知の片田舎に過ぎ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片田舎が舞台になったからにはそれ相当の理由があろう。主人公を在原業平と固定させると物語を見る視野が極端的に狭まってしまふ。実際に新世界を求めて都を離れ、東国の武蔵に定着した一人の男の物語として読むと、平安初期の武蔵国の風景が見えてくるはずである。十段の「藤原氏の母親」と、十二段の「武蔵野は今日はな焼きそ」という和歌の内容と、十三段の「武蔵鏡」などの素材から、当時の武蔵を象徴するものが何かを把握できるであろう。

武蔵の藤原氏は中央貴族の土着を意味し、三芳野の田は潤沢な農地を、十二段の和歌の素材は野焼や焼畑による開拓の有様を暗示し、武蔵鏡は馬具製造技術などの発達を象徴するもの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ような文化と文明を保っていた武蔵国には、当然ながら中央と他地方からの人の流入が少なくなかったと思われる。

また、武蔵国の地方史の中で欠かせないものが韓半島から渡来した流民の東国移住と、彼らによって入植されたはずの文化や土地の開拓であろう。これは史料を通じて確認できるが、物語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も渡来文化の定着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伊勢物語』, 武蔵国, 掠奪, 野焼, 焼畑, 武蔵鏡, 渡来文化, 東下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00-716) 대전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280-2259, 016-638-8841
e-mail : mbh0301@dj.u.ac.kr